

2023년 4월 22-23일 주말예배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6. 다시, 성경적 교회로

## 다시, 성경적 교회로

### 사도행전 2장 42-47절

-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목적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는 모여야 하는 이유와 흠어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우리의 “priority”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의 최종 목적 (purpose)은 모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흠어지는 데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고, 교회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모이는데 있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교회성장 신학’이 현재 한국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것입니다.

분당신도시가 시작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었던 많은 교회는 ‘성장’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단지 사람을 모으기 위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있다니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장’이 목적이 되니,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일단 교회가 성장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며,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표징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면 어김없이 보아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교회들이 들어서서 서로 경쟁하고, 사람을 모으는 호객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처럼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상품권과 함께 파는 모습들, 여기저기 띠를 두르고 교인들을 쟁탈하던 모습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보다는 교회의 뜻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모습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교회를 보며, 목회자와 교인들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닮기를 갈망하는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흠어지는데 있다 할지라도, 훈련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세상으로 흠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스캇 솔즈는 그의 책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에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진단은 놀랄 정도로 일관적이고, 그들이 교회를 떠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교회에 가기’보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무리 속의 이름 모를 한 명이 되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알고 필요로 하는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행사의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당당한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지 않고 설교자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동시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안에 앉아 있기보다는 자신처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만 들으면 눈빛에 생기가 도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한다. 그들은 교회 프로그램에 바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닮은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주변적인 것들은 주변적인 것들로 다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진정으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의 집을 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던 운동, 세상이 주목하고 주님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하게 해주셨던 운동, 그들은 그런 운동에 참여하기를 갈망한다. (행2:42-47) (p.76-77)

## 성장의 원리가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교회가 먼저 ‘모이는 교회’가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흠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 1) 그들의 필요를 따라. . .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관이 있습니다. 회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중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독특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바리새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끊임없이 발생했던 긴장관계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의 소중함이, 예수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중심적인 교회는 안식일이 중요하기에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중심적 교회는 아직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을 합니다.

만나교회가 토요예배를 드리고, 미디어를 통해 10여 년 전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신앙인이면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교회라는 건물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차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있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장로님들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이 ‘만나교회 장로들의 애환’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저는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이 저렇게 어렵구나!

나름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며, 때로는 수모를 감수하고 봉사를 할까요? 누군가는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편안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원리는 늘 동일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여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려할지, 아직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열린 교회가 될지, 아직은 장성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들이 어떤 배려를 할지를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혼내거나 불평하기 전에, 과연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도 마찬가지로의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최지원 권사**

설교문을 묵상하면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를 구분해 생각해 보았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고, 교회마다 선교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는 성공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실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데는 실패했다. 프로그램 운영과 선교사 파송 등을 잘 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이다.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다. 우리가 반 강제적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말보다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사는가에 대한 비전 제시가 되지 않았기에 세상과 주일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닐까?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에 모든 힘을 쏟지만, 정작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흠어진 곳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갈지에 관한 마인드 자체가 안 잡혀 있지 않나.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연결 짓지 못한다. 선교로 보내진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비단 나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체적인 교회, 선교, 예배, 신앙이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회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기회에, 교회가 하는 일, 공동체, 건물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화살이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향해야 하지 않을까?

알랜 크라이더의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를 보면,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를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되었고,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유일한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핍박받는 종교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에 참석하는 황제와 귀족들을 위한 의전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회를 핍박하는 단체가 돼버린 것이죠.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들이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바리새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스캇 솔즈의 책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쪽 편에 서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간과 관심, 사랑을 쏟으셨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분을 믿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질문을 다룬 다음의 글을 읽어 보자.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의 골이 깊다. ... 나는 반드시 이 골을 메울 것이다. ... 무신론자들과 그리스도인들, 그 외에 믿음과 배경을 막론한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더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 아무쪼록 이 팀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에 더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차이를 초월해서 더 솔직하고 유익하고 훈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글의 주인공은 하버드대학 교목인 크리스 스테드먼이다. 그는 무신론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무신론자인 크리스 스테드먼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크리스천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믿는다.

이런 경우들은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배우던 시대와 지금의 교회학교는 무척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열정을 지금의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 포장되지 않으면 전달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했던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쩌면 유일하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는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면 피아노가 있고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날 때부터 스마트 폰을 쥐고 매일 스크린을 접하며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세대가 아니라, 스크린에 나온 사람을 보기 위해 모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벌써 옛 이야기라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 년 전입니다. 청소년부 목사님에게 과감한 생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꾸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말고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을 끼고 수련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통해 영적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면 극장을 빌려서라도 집회를 하라고 말입니다. 일단 모여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생각으로 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1998년 매일경제에 소개된 삼성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이은예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마일에 근무하던 93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녁 무렵 4명의 가족이 지구마일을 찾았다. 순서를 기다리던 가족 중 5살쯤 돼 보이는 어린 아이가 발이 시려 동동 구르고 있었다.

눈썰매장을 이용하느라 옷은 물론 신발이 모두 젖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린이를 직원휴게실로 안내해 발을 녹이게 하고 자신의 신발을 기꺼이 벗어주었다.

“주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리를 듣기는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추운 데서 떨고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무대의상용 빨간 구두를 신고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하얀 유니폼으로 어린이의 콧물을 닦아준 일화 등 그녀는 친절 서비스에 얹힌 수많은 사례를 남기며 고객들로부터 술한 편지를 받기도 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만일 이은예씨가 ‘나는 직원이니깐 깨끗한 복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파는 것보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든지 그것이 돈을 버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은 한번은 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 번의 이벤트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보이시나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과의 그 순간은 눈물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 **2) 성경 중심적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장 성경 중심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짐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을 내려놓아야 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을 때 떠오른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와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곳 말입니다.

가정이 깨어진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안고 나와서 치유되는 교회 말입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아플 때, 자신을 이해하고 안아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서 남는 시간들을 보낼지 방황할 때, 그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성경 중심적 교회는 “죄인들과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한 교회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흡연실을 만든 지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양춘길 목사님이 자신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만나서 도대체 왜 흡연실을 만들었냐고 물었다. 김 목사가 말하길 전도를 해보니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서 교회에 아직 못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을 테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급하면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 목사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담배를 끊는다는 확신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혀야 되느냐는 것. 교회를 다니며 담배를 피운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 교회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나 예배는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예수 만나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느냐고 물으니 있다고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 목사에게 읽었던 책의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 해 주었다. 유태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지만 담배를 피우는 두 학생이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부담을 가진 두 학생이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했다.



한 학생은 랍비에게 “토라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떤가?”를 물었다. 랍비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쳤다. 이제는 다른 학생이 가서 “담배는 피우지만 토라는 공부해야겠죠?” 라고 물었다. 랍비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담배는 피우지만 예배는 드려야한다. 담배는 피우지만 교회는 나와야한다. 교회가 누가 오는 곳인가? 죄인들이 교회에 온다고 매일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죄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마음을 달아 버린다. 이것은 미셔널 처치가 아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서 그런 것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이 교회이다.

- 양춘길 목사 인터뷰 중

<http://www.christiantoday.us/25619>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광야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의 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중심적 교회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약속해 주신 집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스카이 제서니의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 120쪽

니콜라스는 열여섯 살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았다. 책에 따르면 “그는 너무도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크고 강한 사랑의 불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불은 너무도 거세게 타올라 평생 꺼지지 않았다. 몇 년 뒤 니콜라스는 로렌스 형제로 알려졌고 남은 생을 주방에서 일하며 보냈다. 보다시피 딱히 세상이 래디컬하다고 평할 만한 삶은 아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로렌스 형제를 하나님과 깊고 즐거운 교제를 나눈 사람으로 기억한다. 바울처럼 그는 삶의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믿었다. 그런 태도로 그는 자신의 주방 안에서 깊은 기도의 삶을 연마했다. 그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환경을 바꿔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들어 낸다. 내겐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 하지만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가?” -로렌스 형제

성경 중심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 같이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음을 믿는 교회입니다.

영어로 ‘Do your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best’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최선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best’는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힘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재봉이라는 살인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대대장을 증오하여, 출옥하던 날 대대장 관사에 넘어 들어가 식구들을 모두 도끼로 찍어서 죽였던 사람 말입니다

모두가 그를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때, 두 명의 강도가 달려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생명을 부탁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단순명료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진다. 또한 성도로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더 중요해져 간다.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게 되어, 더 도와주고 싶어진다.**

성경 중심적 원리가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든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편에 있던 강도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원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교회가 바로 성경 중심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 - 하현 집사

‘그냥 교회’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냥 교회’는 자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합리화)

‘그냥 교회’는 이미지 좋은 사역을 선호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자신의 죄인 됨을 압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함에도 기꺼이 순종합니다. (말씀으로 분별 필수)

즉, ‘진정한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 - 최지원 권사

‘교회중심적인 교회’는 자기들 중심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단수로는 ‘나’, 복수로는 ‘자기들’ 중심적인 교회인 것이다. 교회중심적인 교회의 예를 생각해보다가 사도행전에서, 본인의 유대교 틀을 깨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교회 중심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이, 선민의식을 갖고 그들(이방인)도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듯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총회에서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문에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고 결론이 났고, 그로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중심적인 교회에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단계를 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만나교회의 흡연실, 카페와 같은 예들이 이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중심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이루어진 과정이구나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만나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중심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삶 속에서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어떻게 그에 맞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교회중심적인 교회’의 두 번째 예는 담임 목사님이 초기 한국교회에 대해 설교하실 때 예로 드셨던 승동교회다. 양반들이 다니던 교회에 백정 박성춘이 세례를 받고 출석하자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홍문동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 승동교회의 모습이 바로 ‘교회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교회 중심적인 교회와 선교 중심적인 교회의 차이에 대한 마지막 예화는 나의 경험이다.(최지원 권사 양육부 봉사) 코로나를 지나며 만나교회의 예배가 전파를 통해 흘러가고, 홈페이지에 와서 엠스쿨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타교인, 미디어교인의 퍼센트가 배 이상 늘어났다. 만나교회는 타교인에게도 모든 양육의 기회가 열려있다. 그런데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업무는 훨씬 복잡해진다. 업무 편의주의로 우리 교인들에게 한정하면 안 되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 안에도 이런 교회 중심적인 사고가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교회를 다니든 안다니든 다른 종교든 무교회주의든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아무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교적, 교인이 아닌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고민하게 되었다. “저희 교회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갈급해서 듣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분에게 복음과 양육이 제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과 업무가 복잡해지겠다는 마음이 공존한다.

교회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선교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